

대림 제1주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며,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늘 나라에 들어가 그리스도 곁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공동체 소식]

■ 대림시기 안내
*오늘은 전례력으로 새로운 한 해와 대림시기의 시작입니다.
*전례안내: 대림시기 동안, 대축일미사를 제외한 미사 중에 ‘대영광송’은 없습니다. 또한, ‘신앙의 신비어’는 ‘나’양식과, 성가 373번 2절로 합니다.

■ 이번 주간의 성인축일
*12/07(목): 성 암브로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
*12/08(금):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 성탄 꽃봉헌 받습니다.
*기간: 12/3(주일) ~ 12/10(주일)
■ 2018년도 매일미사 책을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 12/10(주일)까지, 전례부원에게 주문.(60달러/년)

■ 대림시기 성경쓰기
*범위:야고보 서간, 베드로 서간, 요한 서간, 유다 서간.
*방법: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 1-2쪽 씩 쓰기.
*봉헌: 성탄성야 미사 봉헌예절 시.

■ 중남부지구, ‘제18차 성령 안에서 말씀과 함께 하는 영성피정’
*주제: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굳뜨냐?’
*기간: 2017/12/26(화)~28(목) 2박 3일 간,
*참가비: 270달러/인.
*장소 및 문의: Holy Name Retreat Center in Huston, 713-834-5430 흥권의 레오 (게시판 참조).

■ 성당행관 관련된 사진 자료를 수집합니다.
내용: 사진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전례부장(박 로마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이메일 taeju@postech.ac.kr)

■ 교무금 완납 및 책정에 대한 안내
*내용: 교무금은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그대들도 받을 것입니다.”(마태7,2)라고 되어 있듯이, 하느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총은 조금의 오차도 없습니다.

■ 구역별 판공면담 및 성사 - 일정과 장소
*일정: 1구역: 12/8(금)오전10:00~저녁08:00,
2구역: 12/9(토)오전10:00~저녁08:00,
3구역: 12/15(금)오전10:00~저녁08:00,
4구역: 12/16(토)오전10:00~저녁08:00.
*장소: 본당 나자렛 교육관.

■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파 건
89	219	160	93

■ 주일미사 복사

	시중 복사	향 복사
금 주	김정원 안젤라	고평원 프란치스코
차 주	정예진 한나	정예찬 미카엘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대연 요셉	홍순익 마르띠노 최은미 아네스
차 주	최은미 아네스	전용진 로렌스 조진환 베드로

■ 애찬 봉사자

금 주	조경희, 박계숙, 박주연
차 주	김시연, 박정자, 한순례, 김경돌, 이경남

■ 헌금 봉사자

금 주	이내익 베드로, 이우영 가브리엘
차 주	강영진 라파엘, 강승석 도미니코

■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11/26	45명	205달러	550달러
(총 3세대)			

대림 제1주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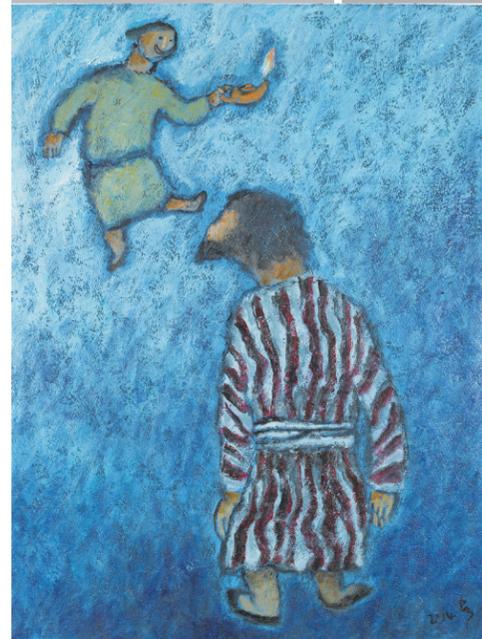
2017년 12월 3일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30 PM
수요일: 7:30 PM
목요일:10:00 AM(교육관)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전용진 로렌스 703.785.0545 lawyjun@gmail.com

주임신부:홍 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 장: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 무: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오늘의 전례

오늘은 전례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대림 제1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언제나 한결같이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풍요로운 은총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우리 모두 순수한 사랑을 실천하며,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아드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 기다립시다.

그림 묵상 ‘행복한 종’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마르 13,33-35)

전례력으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림 시기는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한층 더 깨어 기다리는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림 시기 동안 말씀 앞에 머물러 그분의 뜻을 경청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등불을 들고 오시는 주인을 맞이하는 행복한 종입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 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63,16ㄹ-17,19ㄸㄹ; 64,2ㄴ-7
<아, 주님께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신다면!>



- ◎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커룹들 위에 좌정하신 분, 광채와 함께 나타나소서. 당신 권능을 떨치시어, 저희를 도우러 오소서. ◎
-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들, 당신 위해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
- 당신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위해 키우신 인간의 아들에게 손을 얹으소서.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이다. 저희를 살려 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리이다.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3-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알렐루야.

복 음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33-37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깨어 있어라.>



죄악의 장막 찢고 주님에게로

오늘 제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하늘을 찢고 내려오시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로부터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지금은 하늘 위에 가만히 앉아 침묵하고 계신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분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 것,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침묵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하늘을 찢고 내려오시라”고 청합니다.(이사 63,19) 당신이 참으로 성실하신 분이심을 드러내시라는 간청입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당신 앞에서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당신께로 돌아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분이시기에 당신이 창조하신 이들을 고통과 파멸 속에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인간의 죄로 모두가 고통을 당하게 되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니 성실하신 당신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 사업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고자 하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시어 모두를 당신과 화해시키신 것입니다. 이는 올 한 해 읽게 될 마르코 복음서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복음서 시작 부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옵니다.(마르 1,10) 그리고 복음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집니다.(마르 15,38)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고 하늘과 성전 휘장을 찢고 세상에 개입하시어 당신을 드러내시었음을 밝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모두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고, 인류는 여전히 죄악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을 파견하시어 세상 끝날까지 모두를 당신 안으로 불러 모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러한 예수님의 명을 받들어 세상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는 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시 오실 그날, 곧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을 깨어 기다립니다. 그러면 성실하신 주님께서서는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하늘을 찢고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비로소 그분과 완전한 친교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렇게 종말을 깨어 기다리는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잡을 데가 없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제2독서로 봉독한 코린토 1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풍성한 은총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우리 가운데 튼튼히 자리 잡고 또 어떠한 은사도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흠잡을 데가 많은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독서의 이사야가 이야기하듯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 살아가곤 하며, 마음이 굳어져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 위에서 늘 구원을 받지만, 다시금 부정한 자가 되고, 의로운 행동을 외면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다시금 하늘을 찢고 내려오시라고 기도만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악의 장막을 찢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이기심과 자만의 장막을 찢고 이웃에게로 다가가지 않고, 여전히 가만히 앉아 주님과 당신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막을 찢어 달라고 청하고만 있습니다.

이번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 기다리겠다고 다짐하며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 시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하나님과 이웃을 외면하며 가려왔던 우리들의 장막을 스스로 찢겠다고 다짐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을, 아니 우리 장막을 찢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혼인성사와 그에 관한 교회의 규정들

세례성사를 받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혼인은 성사가 됩니다. 따라서 이들의 혼인 생활은 성사 생활입니다. 두 신자의 혼인이 교회에서 인정하는 유효하고 합법적인 성사가 되려면, 성직자와 2명 이상의 증인들 앞에서 자유로이 혼인 합의를 표명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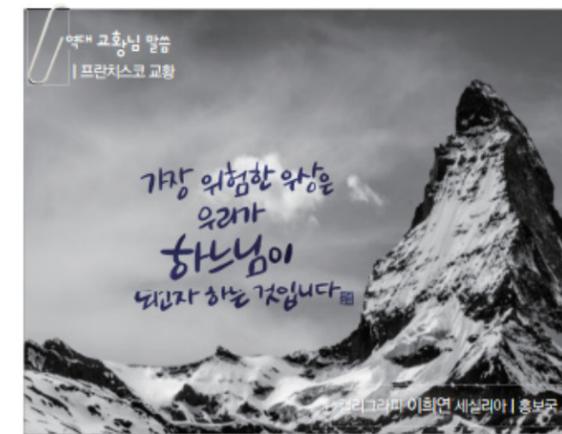
혼인성사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어한 몸을 이루게 하였고, 그들에게 자녀를 낳아 번성하라고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창세 1,27-28 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혼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인 일부일처제(혼인의 단일성)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부부는 죽음 외에는 결코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혼인의 불가해소성)을 가르치셨습니다.(마르 10,2-9 참조)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당신을 희생하셨듯이 부부는 자기희생을 바탕으로 서로 사랑하고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에페 5,25-33 참조)

교회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나 특성을 바탕으로 혼인 당사자들과 그들의 가정을 보호하고자 혼인법을 정해 놓았습니다. 신자가 교회의 혼인 예식을 따르지 않고 혼인하거나 교회의 허락(관면) 없이 비신자 또는 타종교인과 혼인을 한다면, 교회법상 혼인 장애(조당)에 놓이게 됩니다. 혼인 장애의 상태에 놓인 이들은 성사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비신자와 혼인하려는 신자는 혼인한 다음에도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고, 태어날 자녀에게 천주교 신앙을 교육시키겠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이때 비신자 역시 신자인 배우자의 신앙생활과

자녀의 신앙교육을 받아들인다는 서약을 합니다. 그럼, 세례를 받기 전에 한 혼인은 어떨까요? 교회는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된 혼인도 사랑과 상호 함의로 이루어졌다면 참된 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되기 전에 합법적으로 혼인한 부부가 세례성사를 받는다면 그들의 혼인 생활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단일한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혼인 예식을 거행하지 않아도 세례와 동시에 그들의 혼인은 성사의 품위를 갖춘 혼인성사 생활이 됩니다.

혼인 예정자는 적어도 혼인하기 1개월 전에 본당 신부와 의논하여 혼인과 가정에 관한 교리교육을 받고 혼인 면담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혼인성사에 합당한 내적, 영적 준비에 우선적으로 주력하고 외적, 물질적 준비는 절도 있게 하기를 권고합니다.

유한민 마르첼리노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



깨어 기다림

몸은 한계가 있습니다.
몸은 잠도 자야 하고
몸은 부족함도 채워야 하죠.
늘 깨어 기다리기 위해서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고 기다리는
마음이, 영혼이 필요합니다.

깨어 있어라.(마르 13,37)

